

## 2018년 국가직 기출문제 진단

## 문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정답 - ②

①, ④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표(-) 없이 ‘dongnimmum’으로 적는 것이 맞다.

## 문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답 - ③

‘A 그러나/그러므로 B’의 문단 구조에서는 중심 내용이 대체로 ‘B’에 있음에 유의한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①은 ‘언간’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이고, ②는 ‘언간’의 또다른 성별적 명칭을 언급한 것일 뿐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③은 조선시대 ‘언간’의 특성일 뿐 핵심 정보는 아니다.

## 문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정답 - ③

③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예: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이다. 따라서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또한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하거나, 앞 절의 동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예: 꽃이 피고 새가 운다./어머니께서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다)이므로, ‘가던 길을 멈추다’와 ‘나에게 달려왔다’는 상황에 따라 ‘동시성’의 유무가 애매하므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사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 어미 ‘-며’를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① ‘-은/는’은 대조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이 있어, 다른 한쪽이 배제되는 의미가 있다. ‘-도’는 동일(동질)의 의미를 더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은 좋다’와 ‘국어 성적도 좋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수학 성적~’ 또는 ‘수학 성적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작은따옴표’를 쓰는 간접 인용에는 ‘~고/~는’을 쓰고, 큰따옴표를 쓰는 직접 인용에는 ‘~라고/~라는’을 써야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로써’는 자격이나 신분, ‘~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격 조사이다. ‘연설’은 설득의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문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보기>는 글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으려면 된다. 제시문의 주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은 '수학 선생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문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②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정답 - ③

③ (가)의 '나'는 자기의 마음을 베어서라도 달을 만들어 '임'이 계신 곳에 비추고 싶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반면, (나)의 '아가씨'는 남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달을 보며 흐느끼는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①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달'은 작품의 배경의 구실을 하면서 동시에 임의 모습을 더욱 생각나게 하여, 화자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② (가) 화자인 '나'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시적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임(대상)'을 그리워하는 주체(또는 화자)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달이 걸쳐 있는 공간일 뿐이다. (나)에 대한 설명은 맞다.

[참고 자료]

(가) 송강 정철이 쓴 작품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연군 지정(戀君之情)]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한 평시조이다.

[현대어 풀이]

내 마음을 베어서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아득히 넓고 먼 하늘에 번듯이 떠 있으면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흰하게 비추어 보고 싶구나.

[주제] 임(선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忠情)

(나) 임제(林悌)의 작품으로, 사랑하는 임과 헤어지면서도 부끄러워 이별의 말 한 마디 못하고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한시이다.

[원문] 무어별

十五越溪女(십오월계녀) [기] 여인의 모습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 [승] 여인의 상황  
歸來掩重門(귀래엄중문) [전] 여인의 행동  
泣向梨花月(읍향리화월) [결] 여인의 심정

[주제] 이별한 여인의 한(恨), 임에 대한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

문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빼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제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정답 - ④

④ ㉡의 ‘한 줌의 눈물’은 화자의 눈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삶의 애환에 연민을 느끼며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참고 자료]

[감상] 이 작품은 ‘사평역’이라는 시골의 간이역을 배경으로 하여,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쓸쓸한 기차역 대합실의 정경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감각적, 회고적
- 주제 :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 특징

①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함.

②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시적 대상을 표현함.

- 중요 시어의 의미
- 막차: 기다리는 대상.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 형성
- 대합실: 서민들의 인생 역정과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
- 톱밥 난로: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는 존재
- 눈꽃: 가난하고 고단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
- 그음: 소멸의 이미지
- 오래 앓은 기침소리, 쓴 약 같은 입술: 고달픈 삶의 이미지

문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정답 - ④

④ 뒷거래 장면은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에 나타나 있으나 ‘생생한 묘사(그림을 그리듯 상세하게)’로 보기는 어렵다.

①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뺨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 한 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②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해학적 표현: 비속어, 사투리의 사용, 우스꽝스러운 행위, 언어유희 등의 수법을 사용)

③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 다.

[감상]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향토색 짙은 언어를 통해 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해학이 넘치는 유머와 기지로써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단편소설, 순수소설, 해학소설, 농촌소설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표현상 특징: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문체 사용, 역순행적 구조
- 주제

①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② 나와 장인 사이의 해학적 갈등과 일시적 화해

③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풍자

문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 (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贊
- ② 協奏
- ③ 協助
- ④ 協商

정답 - ④

- ④ 協商(맞을 협, 헤아릴 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함.  
 ① 協贊(맞을 협, 도울 찬): 어떤 일에 찬동하여 재정적으로 도움.  
 ② 協奏(맞을 협, 아릴 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함.  
 ③ 協助(맞을 협, 도울 조)

문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정답 - ①

- ① 校訂(학교 교, 바로잡을 정):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글귀를 바르게 고치다’의 뜻이므로 문맥상 맞다.  
 ② 交差(사귄 교, 어긋날 차):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 交換(사귄 교, 바꿀 환): 서로 바꾸거나 주고받음.  
 ③ 決濟(터질 결, 건널 제): 거래 관계를 끝맺음  
 → 決裁(터질 결, 마를 재):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함.  
 ④ 提高(끌 제, 높을 고): 쳐들어 높임.  
 → 再考(다시 재, 생각할 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를 다시 생각함.

문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함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함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정답 - ②

- ② ㉡ ‘애매어 사용의 오류’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동일한 의미의 말인 것처럼 애매하게 사용하거나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이다. 예시문은 ‘부패’라는 단어의 잘못 이해하여 생긴 애매어 사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부패’는 첫 문장에서는 ‘음식물이 썩음’, 둘째 문장에서는 ‘결함이 있는 사회상’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음성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말이다.  
 ① ㉠ ‘우연(원칙 혼동)의 오류’는 일반적인 규칙, 법칙이나 이론을 특수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그러나 예시문은 정언적 상단 논법에 의한 연역 추론으로 오류가 없다.  
 ③, ④ ‘결함(합성)의 오류’는 개별적인 의미에서 참인 것을 집합적인 의미에서도 참이라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고, ‘분해(분할)의 오류’는 전체의 어떤 특성을 부분의 어떤 특성과 일치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따라서 ㉢은 분해의 오류, ㉣ 결함의 오류를 설명하는 예시로 적당하다.

문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정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정답 - ③

제시문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를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의 유사성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유추’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다. ③은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어 설명한 ‘유추’이다.

[참고] ‘유추’는 주로 ‘A와 마찬가지로 B하다, A하듯이 B하다, A처럼 B하다’의 문장 방식을 취하며, 생소한 어떤 개념이나 현상을 특성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빗대어 결론을 추리하는 방법이다.

① 비교(서로 비슷한 점을 들어 설명), ② 분석(하나의 설명 대상을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로 자세히 풀이하여 설명), ④ 예시(세부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구체화하는 설명)

## 문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균간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정답 - ③

③ ‘고갱은 그가 본 ~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의 내용과 다르다. 고갱이 생각한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은 원시인들이지 ‘인상주의’가 아니다.

① ‘세잔이, 사라졌다고 ~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 이끌어 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정답 - ②

② ‘제(第)’는 순서나 차례의 몇 째를 가리키는 접두사이므로 반드시 붙여 쓰고, ‘단위 명사’는 모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서(제1차/제1차), 시각(두 시 삼십 분 십오 초/두시 삼십분 십오초), 년, 월(달), 일(십 년/십년), 아라비아 숫자의 뒤(100 원/100원)’에서는 붙여 씀도 허용한다. 따라서 ‘제3 장~’ 또는 ‘제3장~’이 맞다.

① ‘-ㄹ 걸’은 ‘-것을(목적어)’의 뜻이 살아 있으면 의존 명사로 보고 띄어 쓰고, 어떤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으면 어미로 보고 붙여 쓴다.(예: 방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너 지금 떠나면 후회할걸)

[참고] ‘-ㄹ 거야’, ‘-ㄹ 테야’는 ‘-ㄹ 것이야’, ‘-ㄹ 터이야’의 준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항상 띄어 쓰고(예: 이 옷은 네 몸에 맞을 거야.), ‘-ㄹ 게’는 어미로 굳어진 것이므로 항상 붙여 쓴다.(예: 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

③ ‘지’는 ‘경과한 시간’의 의미를 지니면 의존 명사로 보고 띄어 쓰고,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며, 대체로 후행 서술어가 ‘알다, 모르다’류로 제한되면 어미로 보고 붙여 쓴다.

④ ‘~차(次)’는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참고]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예: 인사차, 사업차 등)

## 문14.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깍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깍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깍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 ④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정답 - ①

① 깍는(교체: 받침 법칙 적용) → 깡는(교체: 비음화 적용) → [깡는]으로 발음된다. 맞는 설명이다.

② 깍아(연음 법칙 적용) → [까까]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자리 옮김은 있지만 ‘탈락’은 아니다.

③ 꺾고(교체: 받침 법칙 적용) → 꺾고(교체: 된소리되기 적용) → [꺾  
교]로 발음된다. ‘도치’가 아니다.  
④ 꺾지(교체: 받침 법칙 적용) → 꺾지(교체: 된소리되기 적용) → [꺾  
교]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는 ‘첨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축약 현  
상은 아니다.

문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정답 - ②

② 첫째 단락의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마지막 단락의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를 참고할 때, ②의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과학 기술로 보완’,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로 말한 것은 포스트휴먼의 다양성 배제한 말임으로 적당한 추론이 아니다.

문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정답 - ①

반의 관계의 어휘는 대체로 하나의 대립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대어’(예: 길다-짧다)와 중간 개념이 없어 대립적 두 상황만 존재하는 ‘모순어’(남자-여자)가 있다. 견해에 따라 상대의 유무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상대어’(예: 스승-제자)도 반의 관계로 보기도 한다.

- ① ‘반대어’이므로 모순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도중’의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대어’
- ③ 중간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모순어’
- ④ 중간 개념이 존재하는 ‘반대어’

문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썽될 ㉠ 솔ברי 하디 天命을 疑心히실찌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브리리 ㉢ 하디 天命을 모르실찌 꾸므로 ㉣ 알외시니

(말썽을 아뢰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③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정답 - ④

① ㉠은 ‘여쭙 이(사람)’의 뜻으로,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② ㉠ 뵈아(다) [‘재촉하다’의 뜻] + 시(높임 선어말 어미) + 니(종결 어미)

③ ㉡ ‘~않지만’의 뜻으로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반대되는 내용이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④ ㉢ ‘~알리셨다’의 뜻으로, 알-(어간) + [오+이](사동접사) + 시(높임 선어말 어미) + 니(종결 어미)의 구조를 지니는 말이다.

[현대어 풀이]

- 전절: (은나라 주왕을 치라는) 말씀을 (무왕에게) 여쭙 사람이 많지만, (무왕이) 천명을 의심하시므로(천명인지 아닌지 몰라 주저하므로) (하늘이) 꿈으로써 (주왕을 치라고) 재촉하셨다.

- 후절: (여말에 이씨를 찬양하는) 노래를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천명을 모르시므로 (하늘이) 꿈으로 알리셨다.

- 주제: 천명을 꿈으로 알림(하늘의 계시)

[배경고사]

(후절)이 태조(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무렵에, 진중에서는 태조가 나라를 세워 백성을 구해 줄 것을 바라는 동요[‘木子得國(목자득국)’이라는 참요적(讖謠的) 내용으로 이씨가 나라를 세울 것]가 떠돌기도 하고, 목자(木子 즉李씨)가 나라를 얻을 것이란 뜻의 노래가 불리었으나, 태조는 천명을 모른다 하여 잠저(潛邸-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 꿈에 신인(神人)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척(金尺-금으로 된 자)을 주면서 ‘공이 문무(文武)를 겸하여 민망이 높으니, 이것으로써 나라를 바로잡으라’고 하여, 드디어 마음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문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①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③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④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정답 - ②

- ② 첫째 단락에서 ‘신라는 반달을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고,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하였으므로, 부합되는 내용이다.
- ① 둘째 단락에서 중국에서는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으나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 ③ 둘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월병을 한국의 비빔밥에 비교 설명한 것이지 월병이 비빔밥을 본떴다는 것은 아니다.
- ④ 첫째 단락에서 보듯이,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어 먹은 것은 점술가의 예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 맞지만 신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 ~문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요?”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느냐?”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증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문19. ㉠ ~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 ③

③ 현실(입몽 전) - 꿈(세속적 욕망) - 현실(각몽, 깨달음 얻음)의 구조에 유의한다. '㉡ 입몽 전의 현실 → ㉢ 꿈에서의 세속적 삶 → ㉣ 꿈속에서 육관 대사와의 만남 → ㉠ 각몽(꿈에서 깬)의 계기' 순이 가장 적당하다.

[참고]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모친 윤씨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소설로, '성진'이라는 불제자(佛弟子)가 하룻밤의 꿈을 통해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법에 귀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갈래 : 국문 소설, 몽자류(夢字類) 소설, 양반 소설, 염정 소설
- 성격 : 전기적, 이상적, 불교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① 시간: 당나라 때
- ② 공간: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 동정호(현실), 당나라 서울과 변방(꿈)
- 제재 :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得道) 과정
- 주제 :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 아류작 : 옥루몽(玉樓夢), 옥련몽(玉蓮夢)
- 특징
- ① '현실-꿈-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을 취함.
- ② 유-불-선 사상이 나타나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룸.
- ③ 설화 '조신의 꿈'의 영향을 받음.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에서 보듯이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③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느냐?"에서 보듯이 자신(소유)에게 환술을 부려 어지럽힌다는 것이지,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다고 의심한 것은 아니다.

④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였다',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다',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던 노화상과 만남'은 나타나 있으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 관계를 부정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문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정답 - ①

- ①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던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고 한 성진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 일찍이